

아세아에서의 共產主義受容：概觀*

李 相 禹**

I

유럽의 19세기적 상황에서 배태되고 형성, 발전되어 온 마르크시즘과 20세기 초반의 상황에서 확산된 마르크스-레닌主義는 西勢東漸의 큰 물결을 타고 中國, 韓國, 日本으로 밀려 들어왔다. 유럽보다 더 오랜 政治體制와 傳統理念 체계를 지녀왔던 이 지역에 낯선 理念體系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마르크시즘, 그리고 마르크스-레닌主義는 전통이념과 충돌, 상승, 상호간섭의 여러과정을 거치면서 거부되기도 하고 부분수용되기도 하였으며 變容되기도 하였다. 약 1세기에 걸쳐 진행된 中國, 韓國, 日本에서의 共產主義受容史는 西歐文化에 의한 충격에서 비롯된 아세아 諸國의 自己改革을 통한 近代化노력 과정에서 가장 아픈 드라마를 표출하였다. 東洋三國중에서 中國을 共產化시켰으며 韓國의 北半部를 變革시켰고 日本政治史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현실적인 「業績」에서 보아도 그러하고 이들 三國의 知識人과 일반시민의 意識속에 감내하기 어려운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16세기에 비롯된 東洋三國에서의 西洋의 受容史에서 아마도 이 이상의 충격을 준 어떠한 理念도 없었을 것이다.

* 이 研究는 1985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 西江大學校 政治外交學科 教授.

II

마르크스主義는 累千年 東洋의 專制王朝體制를 지탱해 오던 儒敎의 政治理念體系가 붕괴되던 시점에 이 지역으로 밀려 들어왔다. 安定된 사상적 기반을 유지하던 시대에 마르크스主義가 도입되었더라면 그전에 이 지역에 전래되었던 여러 西洋사상들과 마찬가지로 흡수, 융해되어 기존사상체제를 더욱 굳혀가는데 기여하였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가 도입되던 19세기말 20세기초의 東洋三國의 사상적 풍토는 극도의 혼란과 自信喪失의 상태였다. 價值觀, 思想, 理念체계의 내부적인 論理矛盾이 아니라 이러한 전통 사상체계가 뒷받침하던 制度, 文物이 西洋에 의해 무너진데서 오는 外的 영향에 의한 간접적 충격으로 온 自信喪失이었다. 軍隊간의 충돌에서 우월한 무기 앞에 어처구니 없이 패배당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西洋식 關稅체제와 부딪쳐 교섭을 벌이면서 수없는 자체 無能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西洋文物에 대한 畏敬과 공포가 증미하였고 이러한 심리가 발전하여 西洋에 대한 보편적 劣等意識이 배태되었고 나아가서 지금껏 소중하게 여겨오던 스스로의 思想・理念體系를 경멸하는 自己否定的 潮流까지 생겨났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뜻있는 知識人들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西洋에 뒤진것은 오직 科學을 이용한 文物에 불과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의 思想體系는 그대로 지키면서 西洋文物만을 받아들여서는 절충타협적 자세가 中國, 韓國, 日本에서 모두 증미하기도 했었다. 이른바 中體西用, 東道西器, 和魂洋才 등의 구호들이 이러한 자세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1) 中國의 경우 1840년의 아편戰爭으로부터 1900년에 이르는 60年間 많은 知識人들이 西歐文物受容에 대한 見解를 펴는 주장들을 했었는데 크게 나누어보면 (1)西學源出中國論 (2)託古改制論 (3)中體西用論 (4)貴因論 (5)全盤西化論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分類自體가 당시 知識人들의 다양한 자

저항을 넘어서서 새로운 知識人들은 하루빨리 西洋을 배워 우리도 西洋처럼 「近代化」하여야 한다는 생각들을 점차 굳혀갔으며 이러한 생각에서 西洋의 科學뿐만 아니라 制度, 思想, 文化 등 모든 것을 배우려는 熱氣가 이 地域을 휩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19세기말~20세기초의 知的風土, 즉 舊思想體系의 단결과 새 사상체계의 형성사이의 轉移期라 할 수 있는 理念的 空白期에 하나의 西洋思想으로 소개된 것이 마르크스主義,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들어온 마르크스-레닌主義이다.

III

政治理念이란 한 시대 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 문제, 과제에 대하여 해결책으로서의 代案을 제시하려는 생각들이 體系化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政治理念의 출현이나 수용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때의 상황을, 그리고 課題를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19세기末의 中國사회는 모든 점에서 絶望的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滿洲族이 세운 清朝는 초기의 강인하던 기상을 잃고 無氣力한 부패정권으로 이미 전락하여 있었으며, 1840년의 아편전쟁을 계기로 벼차게 밀려오는 西洋의 압력을 지탱할 힘을 이미 잃고 있었다. 農業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구조에서 가혹한 地主制로 시달리는 농민들은 生産力의 증대없이 늘어나는 인구의 압박으로 최저의 生存수준의 복지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中體西用은 1898년 이래 정식 口號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대체로 “中學爲體, 西學爲用”의 자세를 말한다. 1870년대부터 주장되던 東道西器論도 비슷한 자세를 나타내는 주장들이다. 王爾民, 「中國近代思想史論」, 臺北: 華世出版社, 1980, 第1章, “十九世紀中國士大夫對中西關係之理解及衍生之新觀念”, pp. 1~94 참조. 日本의 和魂洋才는 幕府政治末, 明治維新초기에 걸쳐 對立을 보였던 攘夷論(國學, 水戶學)과 開國論(洋學)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타협안으로 되어 日本民族主義로 변지던 때의 타협을 표하던 말이다. 韓培浩, “明治體制와 近代化”, 韓培浩 등 共著, 「現代日本の 解剖」, 서울: 한길사, 1978, pp. 9~55 참조.

中國의 19세기적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되던 역사적 과제는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自主의 統一政府의 회복이고, 둘째는 傳統的인 專制政의 횡포에서 국민들을 해방하여 民主政治를 실현하는 새로운 政治革命의 완성이고, 세째는 農奴狀態에서 허덕이는 대다수 국민의 生活條件향상을 목표로 하는 經濟革命의 추진이었다.

국민의 90%이상을 점하는 漢族을 지배해 오던 少數民族 王朝이던 淸朝는 약 2百 50年주기로 반복되어 오던 中國의인 「王朝사이클」, 즉 왕기찬 初期의 효율적인 지배체제—小康상태—中興期—의락을 반복해 오던 王朝의 一生의 마지막을 맞고 있었다.²⁾ 支配力을 상실한 中央政府와 힘의 공백에서 발호하는 地方토호의 세력으로 國家의 一體性이 흔들리던 시대에 이미 접어들어 있었다. 내부의 여러가지 改革運動도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미 주효할 수 없던 시기였다. 외부세계로 부터의 자극과 新教育의 보급으로 民族의 自覺을 하기 시작한 被支配 漢族知識人들은 이러한 혼란의 극복책으로 異民族王朝로부터의 解放에 관심을 쏟았고 더구나 西歐列強과 新興日本의 帝國主義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反射의으로 강해진 反帝民族主義투쟁과 相乘하면서 강한 民族主義運動으로 번졌다. 뿐만 아니라 淸朝政權의 타도는 專制的 壓制로부터의 國民解放이라는 市民革命의 성격도 동반하게 됨에 따라 中國에서는 民族主義, 民權主義가 국민운동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민은 前近代의 地主制의 질곡속에서 기초적 생존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가난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田制改革을 비롯한 ‘가난으로부터의 解放’이 또 하나의 革命과제가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이러한 時代的 상황에서 中國 국민운동 지도자들이 지도이념으로 설정한 三民主義는 時代的 요구를 모두 수렴한 포괄적 정치이념

2) 淸朝는 1644년에 건립되었고 따라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王朝사이클의 末期에 들어서게 된다. Hinton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Harold C. Hinton, *An Introduction to Chinese Politics*, 2nd ed., New York: Praeger, 1978, pp. 14~15.

으로 발전되었다. 民族主義, 民權主義, 民生主義등으로 구성된 三民主義는 20 세기초 국민운동이 國民革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時宜에 맞는 革命理念으로 定着하게 된것은 歷史的 順理라 할 수 있다.³⁾

中國知識인들이 처음으로 접한 初期 마르크스主義는 바로 이러한 歷史的 환경에서 三民主義의 내용을 굳혀 나가는데 많은 시사를 주었으며 훌륭한 論理的 기여를 해 주었다. 더구나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革命의 成功은 비슷한 여건속에서 비슷한 課題를 안고 革命을 추진하던 中國의 政治指導者들에게는 自信과 勇氣를 주었다.⁴⁾

마르크스主義의 敎理중에서 人民主權의 主張은 主權在民의 共和政을 추구하던 國民革命의 課題와 부합하는 것이었고 階級착취로부터 人民을 解放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萬民平等을 강조하는 부분은 모두 三民主義체제 내의 民權主義나 民生主義에 수용되는 것들이어서 별문제없이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1919年 레닌政府의 外務委員代理이던 카라한(L. M. Karakhan)이 帝政러시아가 不當하게 中國으로부터 강탈한 모든 權益을 포기하겠다고는 이른바 「카라한 宣言」을 한 점등은 中國 國民革命 지도자들에게 충분히

3) 三民主義가 19세말 20세기초의 中國사회가 要求하던 革命의 대답임을 잘 보여주는 글로 다음을 볼 것. Chester Tan, *Chinese Political Thought in the Twentieth Century*, 1971의 한국어 번역판, 閔斗基역, 「中國現代政治思想史」 서울: 知識產業社, 1979의 제 5장 孫文, pp. 95~128.

4) 中國知識인들에 미친 마르크스主義의 영향에 대해서는 Benjamin I.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의 한국어 역서인 권영빈역 「中國共產主義運動史」, 서울: 형성사, 1983, 제 1장 “중국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원”, pp. 25~49를 볼 것. 中國지식인이 마르크스主義를 受容해 가는 意識內面에서의 과정에 대해서는 中國 共產黨의 代父에 해당하는 李大釗와 陳獨秀의 글들을 年次別로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특히 「新青年」誌에 실린 두사람의 글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李大釗의 思想變化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 「李大釗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62; 및 Maurice Meisner, *Li Ta-Chao and the Origins of Chinese Marx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그리고 陳獨秀에 대해서는 Benjamin Schwartz, “Biographical Sketch: Ch'en Tu-hsiu”, monograph, Harvard University Press, 1948 등을 볼 것. 五四運動 전후의 共產主義受容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저작들의 모음으로는 다음 책이 특출하다.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編, 「五四運動文選」, 北京: 新華書店, 1959.

好感을 줄만 하였다. 거기다가 레닌의 중국혁명지원정책에 따라 코민테른에서 파견한 보로딘(C. M. Borodin), 보이틴스키(G. Voitinsky), 마링(G. Maring) 등의 활약으로 國民革命의 주도세력이던 孫文등 國民黨도 好意的 반응을 보였다. 이런 계기로 國民黨의 조직체제나 國民黨政府조직에도 소련 共產黨 및 蘇聯政府組織체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中國에서의 國民黨革命은 브르조아 市民革命의 성격을 가졌던 혁명으로 革命課題해결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敎理의 一部와 레닌의 실질적 원조등이 약간의 도움이 되었을 뿐, 프롤레타리아獨裁를 표방하는 레닌主義革命과는 근본적으로 相衝하는 것이어서 國民黨은 待望의 統一政府수립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反共으로 右轉화하였다. 근본적으로 自由民主主義를 지향하던 國民黨과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를 내세우는 共產主義교리와는 타협이 불가능하였으며 知識人, 資本家, 小市民등이 주축이 된 國民黨革命 주체세력은 資本主義的 경제발전을 통한 福祉向上을 목표로 하였지 私有財産制를 부인하는 共產革命路線을 추종할 수 없었다. 더구나 강한 民族主義의 성향의 國民黨路線과 汎世界的 無產者同盟을 표방하던 國際共產主義운동과는 軌를 같이 할 수 없었다.⁵⁾

國民黨과 共產黨과의 결별은 中國의 近代化운동에서 심각한 內紛을 야기시켰으며 그 결과 20年の 內戰을 통하여 大陸을 석권한 共產中國과 臺灣으로 후퇴한 自由中國으로 國土와 民族이 分斷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中國共產革命의 지도적 理念이 되었던 毛澤東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기초한 共產이데올로기임에는 틀림없으나 外來思想이던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의 현실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變容되면서 毛澤東思想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核의인 要素들이 근본적으로 수정되면서 새로운 全體主義이데올로기로 발전되었다. 특히

5) 國民黨의 理念體系인 三民主義와 共產主義와의 다른點을 잘 지적한 사람으로 「國民革命과 國民黨」을 쓴 戴秀陶가 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Tan, (閔) *op. cit.* pp. 141~147에 실려 있다.

歷史發展原動力을 生産力변화—生産關係變化에서 찾던 마르크스主義의 唯物的 기초는 毛澤東思想體系에 와서는 人間意識의 變化에서 歷史發展의 추진요소를 찾는 강한 主意主義로 바뀌었으며 下部構造개혁을 통한 社會主義革命성취를 주장하던 마르크스主義的 敎理대신 意識次元의 革命, 즉 文化大革命을 통한 革命성취로 方向을 바꾸게까지 되었다.⁶⁾

毛澤東革命은 失敗하였다. 1950년부터 70年代중반까지 지속된 혁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바라던 理想國家로의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王朝時代의 絕對君主制를 대신한 黨獨裁體制 아래서 中國人民들은 똑같은 정치적 속박을 받았으며 새로운 黨僚들이 이룩한 새 階級 밑에서 中國人民들은 옛과 유사한 계급 착취를 겪었으며, 個人的 성취욕구를 말살하는 人民公社 등의 社會主義생산방식의 채택으로 民生도 향상되지 못하였다.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새로 시작되는 鄧小平의 第二革命은, 아직도 共產主義를 기본적인 지도이념으로 유지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脫共產主義로 移行하는 혁명이라고 해석해야 할 점이 너무도 많다. 진행되고 있는 혁명이어서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나 自由市場의 復活, 부분적 私有財産制의 인정, 경쟁을 허용하는 資本主義的 生産방식의 도입 등에서 이미 脫共의 징후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⁷⁾

中國은 近代化를 혁명적 방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受容하였고 이제 여기서 탈피하려 하고 있다. 약 1세기에 걸친 이 거대한 드라마에서 5천년의 傳統을 지녀온 中國은 어떤 變身을 마치고 21

6) 마르크스主義로부터 毛澤東思想으로 이어내려오는 思想內面的인 進化과정에 대한 文獻은 너무 많아 열거할 수 없으나 다음책을 보면 선명한 變化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Maurice Meisner, *Marxism, Maoism & Utopianism*,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2. 그리고 毛思想을 깊이 있는 思想이라고 보지 않고 단순한 戰略戰術이라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 흐름을 포착한 책으로는 다음을 볼 것. 尹慶耀, 「從馬克思, 列寧到毛澤東」, 臺北: 國際關係研究所, 1973.

7) 鄧小平의 改革의 方向을 이해하는 도움되는 글들을 모은 책으로 柳世熙현, 「오늘의 中國大陸」, 서울: 한길사, 1984 및 慶南大 中蘇研究室編 「中共의 改革政治」, 서울, 1985 등이 있다.

세기로 들어 설 것인지 주목할만 하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近代化의 전통을 함께 겪고 있는 다른 아세아國家에 크나큰 敎訓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에서의 共產主義受容은 中國과는 그 과정을 달리한다. 中國과 함께 儒敎的 政治文化를 바탕으로 한 專制王朝體制를 유지해 오던 韓國도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西勢東漸의 큰 물결속에서 近代化의 전통을 겪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말 먼저 西歐文物을 받아들인 新興日本의 帝國主義의 침략앞에서 韓國의 관료들과 市民들은 모두 당황하였다.

새로운 西歐文物의 위력을 직접 겪으면서 우리도 이를 受容하여야 한다는 생각과 守舊의 安定을 期하려는 생각이 때로는 충돌도 하였고 때로는 타협도 하면서 19세기 한국지도자들의 意識體系를 혼란속에 몰아 넣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外勢침입의 속도가 너무 빨라 對應할만한 內部變革의 시간을 갖지 못하여 混亂은 加重되었다.

開化派와 守舊派의 대립이 미쳐 溶解되어 하나의 통일된 意識體系를 형성할 사이도 없이 日本의 強占이 이루어져서 20세기초 日本의 植民地로 전락할 당시에는 이렇다 할 獨自의 改革주도 理念體系가 세워지지도 못했다.

王朝의 몰락, 外國의 植民化의 크나 큰 변혁속에서 때늦은 民族的 自覺을 한 韓國知識人들은 가장 급선무인 國權恢復, 獨立爭取를 위한 운동에 관심을 모았으며, 이러한 獨立運動의 지도이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外來思想을 도입, 소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풍토속에서 西歐 自由民主主義 理念들과 함께 마르크스-레닌主義도 도입되었다.

韓國知識社會에 처음으로 共產主義思想을 도입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 日本留學生들이었다. 이들은 특히 蘇聯의 볼셰비키革命의 成功에 자극받아 그 혁명의 지도이념이던 마르크스-레닌主義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國境을 초월한 汎世界的 普遍性에서 나라잃은 아픔의 위안을 찾았고 나아가서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反帝國主義기치에 매료되어

獨立의 가능성을 그곳에서 찾으려 했었다.⁸⁾

日本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뼈저린 회한은 19세기적 韓國實態에 대한 아픈 自省을 불러 일으켰으며, 獨立運動과 獨立 후의 祖國近代化의 方向 모색에서 舊體制 아래서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方도를 찾아보려 하였다. 이들의 共通된 귀결은 絶對君主制의 부인, 自由民主主義를 기초로 하는 共和政으로 萬民平等의 社會를 건설하며, 社會成員 모두가 고르게 福祉를 누리는 理想社會를 그리게 되었다. 이것은 19세기적 農奴社會에서의 비참한 농민생활상에 대한 反射의 反應이었다.

그러나 韓國에서의 共產主義受容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日帝의 철저한 탄압으로 1925年 4月 17日에 서울에서 구성되었던 朝鮮共產黨도 해방되던 1945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와해되어 버렸다.⁹⁾ 다만 知識人들과 일부 혁명가들의 意識속에 막연한 형태로 수용되어 있었을 뿐이다.

國外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政治 및 軍事지도자들 중에는 中國共產黨과 함께 抗日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들은 理念次元에서 무장된 共產主義者들이라고 하기보다는 抗日鬭爭의 한 方法으로 공산주의자들과 공동투쟁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¹⁰⁾

한국의 獨立은 日本의 敗戰으로 갑자기 이루어졌고, 戰後의 聯合軍의 分割占領은, 미처 한국사회내부에서 思想的인 정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北韓에 共產政權을, 南韓에 自由民主主義政權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8) 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의 歷史의 背景”, 北韓研究所刊, 「北韓政治論」, 1976, pp. 13~71 및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등 참조.

9) 「朝鮮共產黨」은 1928년 12월, 코민테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이론마 「12월 테제」에 의하여 해산되었는데 黨中央은 1929년 6월, 滿洲總局은 1930년 6월, 그리고 日本總局은 1931년 10월에 해체되었다. 그뒤로는 朴憲永등이 지하에서 조직활동을 유지했지만 사실상 와해상태였다.

10) 예컨대 中國共產黨이 조직한 東北抗日聯軍에 소속해서 투쟁했던 金日成등은 여러상황조건으로 보아 共產主義理念에 심취할 수 있었을까 의심된다. 해방 이전의 金日成의 활동에 대해서는 許東榮, 「金日成評傳: 虛構와 實像」, 東京亞紀書房, 1985을 볼 것.

北韓共產主義은 朝鮮共產黨運動의 승계가 아니라 蘇聯占領軍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金日成을 주축으로 한 北韓政權의 지도자들은 해방전 國內에서 共產主義운동을 해오던 朴憲永등과는 아무런 연결도 없던 사람들이었으며 共產主義를 理念으로 소화할만한 能力도 修練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共產政權을 세운후 새로운 정부의 지도이념으로 새롭게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受容하였을 뿐이다.

北韓정권의 지도자들은 정부수립후 40년의 세월속에서 한국적 풍토에 맞는 정치이념으로 서서히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체로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金日成主體思想이라는 體系화된 政治理念體系를 만들어 놓았다.¹¹⁾

金日成主體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기본적 사상체계의 土着化라고 北韓당국자들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지만, 內實에 있어서는 中國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改造를 해놓은 새로운 全體主義政治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金日成主體思想體系에서도 毛澤東思想에서와 마찬가지로 唯物的 世界觀은 강력한 主意主義로 대체되었으며, 民主集中制에 의한 新民主主義體制의 外形을 유지하면서도 指導者의 지도역량에 절대 복종하여야 個人이 自由스러워진다는 새로운 全體主義논리를 내세워 1人支配의 政治體制論理를 확립시켰다.

北韓共產主義는 南韓의 大韓民國政府와의 대결을 의식하여, 이에 對應할 수 있는 要素로서 강한 民族主義의 要素를 첨가하고 있다. 이들은 汎世界的 無產者同盟이라는 보편적 공산주의敎理를 모든 民族간의 平等으

11) 金日成主體思想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볼 것. 金甲喆, 「北韓政治이데올로기分析: 主體思想을 중심으로」, 서울: 書香閣, 1977; Ho-min Yang, "Juche Idea: North Korean Ideological Setting," Chong-shik Chung & Gahb-chol Kim, eds., *North Korean Communism*, Seoul: RCPU, 1980, pp. 126~168; Han-shik Park, "The Ideology of North Korean Communism", J.K. Park & J. Kim, eds., *The Politics of North Korea*,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79, pp. 143~162. 北韓측 해설로는 「군로자」 1979년 4월호에 실린 황장엽,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가 가장 체제적이다.

로 바꾸어 수용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共產主義의 보편적 교리의 恣意的 수정을 自主性的 발취라고 변명하고 있다.

北韓共產主義는 韓國民族의 自救의 近代化敎理로서 內部에서 自生的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強大國政治속에서 派生된 韓國의 強大國從屬의인 상황에서 자라나온 기형적 정치 이념체제라 할 수 있다.

韓國共產主義는 朝鮮朝와 日帝에 걸쳐 이 땅을 지배해 왔던 專制主義정치체제의 脫皮의 논리가 아니라 그것들을 承繼한 새로운 絶對主義 全體主義논리로 발전되어 왔으며, 舊體制의 파괴에는 기여하였을지 모르나 傳統의 政治文化에 바탕을 둔 새로운 自由人民의 社會를 세우려는 韓國近代化 노력에는 파괴적인 저항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韓國共產主義의 극복이야말로 21 세기를 내다보는 韓國國民의 自主的 近代化노력의 큰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日本에서의 共產主義受容은 中國과 韓國에서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시도되었다. 日本은 中國 및 韓國과 같은 政治文化圈에 속해 있었지만 지난 수백년동안 강력한 中央集權的 王朝下의 專制政이 아닌 地方分權的 封建制를 유지해 왔으며, 中國 및 韓國에서의 文民統治체제가 아닌 武人支配體制를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5세기경부터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이미 西歐文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중엽 미국의 開港압력을 계기로 東洋三國中 제일 먼저 門戶를 개방하여 능동적으로 西歐의 制度, 思想, 文物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로 19세기말에 이르러서는 近代의 統一國家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西洋의 技術을 도입하여 산업화를 상당수준 진행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西歐諸國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웃 韓國과 中國에 帝國主義의 침략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變身의 과정에서 1894년의 淸國과의 戰爭, 1904년의 러시아와의 戰爭에서 승리함으로써 國民의 士氣도 높았다. 마르크스-레닌主義가 日本에 소개되던 19세기말, 20세기초의 日本은 이미 西歐化된 近代國家의 모습을 갖춘 때였으며 英國式 立憲君主制아래 상당수준의 民權신장을

이룩하고 있을 때였다. 뿐만아니라 西歐 民主主義, 自由主義, 資本主義 등의 諸 思想體系를 받아들여 스스로의 政治理念體系를 세워가던 때였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담당하여야 할 歷史的 과제가 뚜렷하지 않을 때였다.

日本의 近代化의 특색은 權力을 가진 上層部의 이니셔티브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守舊의 政府를 대상으로 人民들이 革命을 시도하여 近代化를 이룩하는 양상의 여타의 아세아국가들과는 이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日本은 資本主義의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여 성공한 나라이면서도 放任된 資本主義가 가져오는 극단적 貧富의 격차와 資本家の 부패를 미리부터 政府가 統制하여 이른바 資本主義 모순을 극소화시켜왔기 때문에 革命에 열의를 보일 프롤레타리아나 農民집단을 생성해 내지 않았었다.

이러한 풍토에서 받아들인 마르크스-레닌主義는 프롤레타리아 階層의 革命理論으로서가 아니라 進步的 知識人들의 好奇心의 대상내지는 理想主義者들의 理想郷구상의 자극제로서만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日本의 경우 아세아에서의 唯一한 植民國家로서 韓國, 中國등을 착취함으로써 얻어진 剩餘의 富로 國內의 低所得層의 生活을 꾸준히 향상시켰으므로 國內에서의 프롤레타리아革命의 여건을 훨씬 완화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특수상황에서 日本에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가 현실정치의 지도이념으로 정착될 수 없었으며 近代化의 百年歷史속에서 共產主義는 日本社會가 스스로의 모순을 고쳐나가는 자극제로서만 받아들여졌을 뿐이다.¹²⁾

12) 日本共產黨은 코민테른의 공작과 지원으로 1922년 7월 22일 창당되었으나 10여명의 당원을 가졌을 뿐이었다. 立花隆治, 朴忠錫역, 「日本共產黨史」서울: 고려원, 1985의 제1장, “일본공산당의 탄생”, pp. 28~57을 볼 것. 日本共產黨전후의 日本社會主義운동의 개관에 대해서는 李洪九편, 「마르크스主義와 오늘의 세계」, 서울: 법문사, 1984, 제7장 “日本의 마르크스主義”(朴忠錫), pp. 189~204를 볼 것.

IV

産業革命의 엄청난 변화속에서 資本主義의 優勝劣敗의 비정한 각축전이 벌어지던 영국등의 산업사회에서 무력하게 뒤쳐지는 노동계층의 구제를 과제로 제시되었던 마르크시즘은 레닌主義의 全體主義, 專制主義 理念體系와 연결되어 프롤레타리아獨裁의 革命理念으로 발전하면서 러시아, 中國등 前近代의 사회의 革命論理로 발전해왔다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였다. 高度 資本主義사회에의 모순을 전제로 형성된 政治理念이 資本主義體制가 성립되지 않은 後進社會에서 資本主義의 近代化를 사전에 막는 도구로 씌워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自由民主主義의 體驗이 없었던 지역에서만 설득력을 가진 政治理念으로 받아들여졌다. 機械的 平等의 강조나 集團의 행복의 논리로도 無產者들의 自由에의 갈구와 비록 변변치 않을지라도 내것을 내가 所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꺾지 못했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市民自由 保障의 自由民主體制라는 政治體制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專制主義體制에 대한 唯一의 代案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가 내세우는 人民民主主義는 專制君主制의 權威主義체제에 대한 次善의 代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以上은 아니기 때문에 自由民主主義의 經驗이 없는 社會에서만 革命的 論理로 받아들여졌다. 짜르 治下의 러시아, 淸朝와 軍閥들의 압제아래 있던 中國, 그리고 王朝時代에서 植民時代로 이어져 내려 온 韓國의 풍토에서만 마르크스-레닌主義는 革命的 指導理念으로 역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었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東洋三國에 도입되면서 각나라가 처해있던 처지에 따라 각각 다른 기여를 했다. 萬民平等의 民主革命, 民生福祉의 기초로서의 經濟革命, 그리고 反帝國主義 自主權恢復의 民族解放투쟁을 함께 추진하던 中國國民革命 시기에 共產主義는 平等主義, 民主主義, 反帝國

主義의 要素때문에 中國정치지도자들에게 한 때 好意的으로 받아들여졌으며 國民革命의 指導理念이 된 三民主義理念구성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韓國의 경우 日帝植民下에서 獨立運動을 하던 지도자들에게 共產主義의 反帝國主義的 구호들은 매력적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社會內的 前近代의 階層構造타파의 지도이념으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日本에서 만은 日本社會의 상대적 先進性으로 말미암아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中國과 北韓의 共產政權을 이끄는 體制維持理念으로 된 이후에는 革命과정에서와는 달리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강한 主意主義的 政治文化傳統을 가진 사회에서 唯物的 論理로는 人民들을 설득할 수 없었고 優勝劣敗의 준칙에 따라 社會階層간의 上向移動이 보장되던 社會生理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物的 成就動機를 배제한 社會主義 경제체제를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일은 처음부터 성공을 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였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前近代의, 아세아의 封建體制를 타파하는 革命의 지도이념으로서는 받아들여졌지만 혁명후 새로운 體制를 이끌어가는 秩序管理의 指導理念으로는 저항을 받은 셈이다.

V

마르크스死後 1 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지도로 불세비키 革命이 이루어진지도 이미 70 년의 시간이 지났다. 아세아에 들어와 中國共產革命을 성공시킨지도 이미 40 年이 지났다. 그리고 東洋의 두 共產國家인 中國과 北韓의 秩序管理理念으로 40 년의 경륜을 쌓았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이렇듯 이제는 歷史의 한부분이 되었다. 그동안 共產主義가 이룩한 功도 過도 이제 모두 歷史속에 定着되었다.

西勢東漸의 거센물결속에서 앞선 西洋文物의 침투로 여지없이 부서져 내리던 아세아의 舊體制, 그리고 그속에서 近代化의 몸부림을 치던 아세아

人들의 투쟁도 이제 1 세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渦中에서 침투해 들어왔던 西洋外來思想의 하나로서 共產主義는 去勢되고 歪曲되고 變容된 모습으로 毛澤東思想, 金日成思想속에 溶解되어 버렸다.

한 世紀에 걸친 近代化의 드라마속에서 中國人, 韓國人, 日本人들은 충분한 自覺을 했으며, 自信을 회복해가고 있다. 西洋에 의해 휘둘려졌던 東洋人들이 이제 그 西洋을 극복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가고 있다. 西洋思想에 얽매었던 意識이 서서히 自我를 되찾고 있으며 잊었던 과거의 傳統의 脈을 다시 찾아 그동안 소화한 西洋정신과 조화시켜 한 차원 높은 것으로 昇華된 새로운 價體值系, 理念體系를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다. 21 세기에는 아세아人들도 自信感을 가지고 自主的 발전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속에서 지금 20 세기의 경험을 정리해 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한 가지의 敎條的 外來思想에 현혹되어 이끌려 다니지 않을만큼 아세아도 깨었다. 아세아에서 수용했던 共產主義는 이제 새로운 아세아적 理念體系 속에 서서히 溶解되어 버릴것이다.